

201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6	11	16	21	26	31	36	41	46	1	6	11	16	21	26	31	36	41	46	1	6	11	16	21	26	31	36	41	46	1	6	11	16	21	26	31	36	41	46	1	6	11	16	21	26	31	36	41	46	1	6	11	16	21	26	31	36	41	46

해설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부자 영감이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 안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이가 번쩍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감은 그 집 아들에게 먼저 돌무더기를 쌓아 놓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돌이라도 모으자는 생각에 검은 돌, 노란 돌 가릴 것 없이 모두 모았습시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집 사람들이 노란 돌이 금덩이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 챈 부자 영감은 금덩이가 탐나 돌무더기를 쌓 백 석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금덩이 가격이 쌓 천 석 정도였으니, 사실은 영감에게 어마어마한 횡재였지요.

약속한 날이 되자, 아들이 쌓을 실어줄 영감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감은 갑자기 “뽕 위의 가마니는 고삿섬이니 내려놓고 다른 것을 가져가게.”라고 했습니다. 고삿섬은 곡식 중 가장 잘 여운 것으로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짚인데, 가장 위에 있던 가마니의 곡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 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제 영감이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돌무더기를 모두 실어 놓았는데 마침 가장 위에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려고 하자 아들은 영감이 말했던 고삿섬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감님도 고삿섬 하나를 내려놓으셨으니, 우리도 고삿돌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돌맹이로 쌓을 백 석이나 얻게 되었으니, 쌀과 고삿돌을 제사상에 올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려 합니다.”

영감은 아자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감은 결국 쌀 백 석을 주고 돌무더기만 잔뜩 실어왔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이끌어낸다.

아들이 금덩이를 모른다는 것을 안 부자 영감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돌무더기를 쌓 백 석에 사 큰 이익을 얻으려 했다. 게다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쌀가마니들 중 가장 잘 익은 것을 아깝다며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무더기만 쌀 백 석을 주고 산 셈이 되었다.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2] 이제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수학에 관한 교양서적을 읽다가 보니까 ‘라이프 게임’이란 것이 나오더라고요. 너, 혹시 들어봤니?
남학생: 아니. 그런데, 왜?

여학생: 1970년 영국의 수학자 존 콘웨이가 처음 제안한 것인데, 생명 현상의 특성을 기초하여 만들어 낸 모형 게임으로, 생명체의 개체 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활용되는 거래.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 볼래?
남학생: 그래,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여학생: 여기에 그림을 그려 설명할게. 라이프 게임은 바둑판 모양의 격자에서 이루어져. 각각의 정사각형을 하나의 생명체라 하고, 그 중 음영을 칠한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은 생명체라고 할게. 라이프 게임에서 생명체는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살거나 죽어. 제일 규칙은, 살아 있는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여덟 개의 생명체 중 두 개 또는 세 개가 살아 있으면,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예를 봐. A는 B와 D, B는 A, D, C, C는 B와 D에 의해 둘러싸여 있잖아. A, B, C 모두 둘 또는 세 개의 살아 있는 생명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두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아. 제이 규칙은, 죽은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싼 생명체 중 정확히 세 개가 살아 있으면 다음 세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남학생: 그림, 죽은 생명체인 E는 B, C, D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모두 다음 세대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네. 제삼 규칙은 뭐야?

여학생: 제삼 규칙은, 주변에 생명체가 한 개 이하이거나, 네 개 이상이면 죽는다는 거야. F는 자신을 둘러싼 생명체 중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D밖에 없으니가 다음 세대에는 살지 못하겠지. 자, 그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여기 두 번째 예의 (가), (나), (다)가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될지 말해 볼래?

2.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두 번째 예’에서 (가)와 (나)는 모두 두 개의 생명체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다)는 둘러싸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살아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다)는 다음 세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3]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간혹 원곡의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친구들, 소위 ‘음치’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음치는 그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의 고저·강약·박자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각적 음치’라고 합니다. 감각적 음치는 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의 음과 다르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노래가 원곡과 다른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한편,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지한 음을 소리로 재현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운동적 음치’라고 합니다. 잘못된 호흡법이나 발성법 때문에 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운동적 음치에 속하지요. 운동적 음치는 감각적 음치와 달리 자기 노래가 원곡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음치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음치인 사람이라도 부단히 연습하면 음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음치를 교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곡의 음과 자신이 낸 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잘못된 음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음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후 음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강연이다. 강연 내용에

서는 감각적 음치가 음을 인지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음이 원곡과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보통 음악이나 영화에서 표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까? 논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표절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교수: 타인이 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도용했거나, 타 논문에서 가져온 표현인데도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면 일단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표절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몇 년 동안 논문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는데, 논문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수: 표절에 관한 사회적 풍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절이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많은 사람들이 표절이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표절을 한다는 거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실제로 논문 표절이 우리만큼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교수: 프랑스의 경우 학위 논문을 표절하면 5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심지어는 운전면허 시험조차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기구가 논문 표절 시비를 공정하게 가려내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과제물까지 표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표절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지요.

진행자: 설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해 왔군요. 논문 표절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 우선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 의식을 높이고 표절 예방을 위한 대학의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 시비를 공정하게 가려내기 위한 정부 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4.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교수는 두 번째 말에서 ‘표절’이라고 하기 애매한 경우’가 ‘학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의 말을 통해 논문은 표절 기준이 명확하여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표절을 가려내기 쉽다고 보기 어렵다.

5. [출제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진행자는 교수의 첫 번째 말이 끝난 후, ‘표절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라며 교수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논문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며 다음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교수의 두 번째, 세 번째 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어지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6.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연상한다.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을 <보기>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글’을 ‘댄스 공연’, ‘글 쓰는 이’를 ‘댄스 선

수라고 하면, '독자'는 공연을 보는 관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관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자 수준을 고려한다는 ①의 연상은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어휘가 지닌 의미와 쓰임을 파악한다.

'받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서술어로 사용되면서 어떤 문장 성분을 취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㉔은 부사어 '가게에서'와 함께 사용되어 사람을 주어로 취했다. 그러나 ㉔은 부사어를 취하지 않았으나 ㉔에 생략된 주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한다.

㉔은 귀농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귀농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국어의 관형어 유형을 이해한다.

㉔는 체언 단독으로 관형어를 형성하는 유형이다. ㉔는 '만나다'의 어간 '만나-'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㉔는 관형사가 곧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㉔는 체언 '때'에 관형격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를 형성하였다. ㉔는 관형사가 곧바로 관형어가 된 유형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㉔이다.

10. [출제의도] 자료로부터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끌어낸다.

(가)는 성인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음을,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다)-1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져 혼자 놀기를 즐긴다는 점을, (다)-2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1을 활용한다면, 성인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다는 것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이 혼자 놀기를 즐긴다는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쓴다.

접속 부사어 '그리고' 앞에서는 생애 관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며, '그리고' 뒤에서는 앞으로 생애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앞뒤 문장의 연결로 보아,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나'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내용을 생성한다.

생태 관광의 취지는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 환경의 가치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㉔을 보면 '심신의 피로를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과 '환경의 가치를 넉넉하게 가르쳐 주는'이라고 하여 생태 관광의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따스하게 보듬어 주는 어머니'와 '넉넉하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고 하여 의인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3~18] (시가복합)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나)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 (다)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雁]'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북간도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빼앗긴 농민과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강제이주자 등이 조선에서 떠밀려가 정착한 곳이다. 이 시는 두만강을 넘어와 북간도에서 만난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를 통해 비참한 민족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인간의 체험은 구체적인 시공간과 결합되어 있어서 어떤 기억은 특정 시공간에서 체험한 일이나 분위기와 결부된다. 이 시의 화자는 우연히 목격하게 된 '사

내'와 관련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의 처지나 상황에 공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있다.

(다) 이달, '유씨 집의 외로운 기러기를 읊다[詠柳家孤雁]'

기러기는 북방에서 여름을 보내고,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겨울 철새이다. 그런데 이 시에 등장하는 기러기는 사람에게 붙잡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로 지칭하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기러기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고향인 전라도를 떠나 '북간도'에 오게 된 '가시내', (나)는 눈이 퍼붓는 깊은 밤에 '출고 큰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내', (다)는 사람에게 붙잡혀 '유씨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러기'의 상황과 관련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14. [출제의도]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1연에서는 고향인 전라도에서 온 '나'의 '눈'이 바다처럼 푸르고 '얼굴'이 까무스레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시내'의 고향이 바다에 인접한 곳을 짐작할 수 있을 뿐, '나'가 전라도에서 비참한 삶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는 '출고 큰 방'에서 울고 있는 '사내'의 슬픔이 '나'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1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시어나 시구를 해석한다.

'근심이 없다 한들 네 어찌 풍족하랴'에는 '유씨 집'에서 기러기가 '본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다.

17.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의 의미를 파악한다.

'술막'에서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내인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출고 큰 방'에서 울고 있는 '사내'와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와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㉔는 사람에게 붙잡혀 '유씨 집'에서 지내게 된 '나'가 본성에 따라 사는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설의적 표현은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인데, ㉔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9~22] (사회)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이 글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유권자가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내면적이란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유권자의 정당 가입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먼저 투표 행위와 관련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의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단락에서 각 모델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여 그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글에 제시된 이론에 적

용한다.

<보기>의 (가)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합리적 선택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나)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계급에 따라 투표를 했다는 내용으로, 사회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밝히다'는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린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㉔의 '밝히다'도 사태의 진상을 판단하여 드러내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3~25] (예술) 진중권, '초현실주의'

위 글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예술가들과 '테페이즈망'을 통해 이미지를 낮설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두 예술가 집단을 중심으로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사조 가운데 하나인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두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을 읽고 글쓴이가 세운 글쓰기 계획을 추론한다.

위 글의 서두에는 초현실주의가 영향을 미친 분야 및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중요하게 탐구했던 것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테페이즈망' 기법이 사용된 [B]의 경우는 익숙한 사물을 의식적으로 낮설게 배치한 것이므로,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졌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진 것은 '자동기술법'이 사용된 [A]이다.

2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유를 추론한다.

'자동기술법'은 예술가의 의식을 배제하고 무의식을 표현하려고 했던 기법이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수동적인 무의식의 전달자로 전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26~29] (현대소설) 이동하, '장난감 도시'

초등학교 4학년인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 와 1년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나'의 회고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한국 전쟁 이후 도시의 어둡고 비참한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가난하고 외롭고 폭력적인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비참한 현실을 견디어 가는 인간의 내면적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줄거리를 파악한다.

'나'의 누나는 두부 공장 집 민머느리가 된 상태이며, 누나가 집에 와 있던 어느 날 '두부살의 오빠'가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나'는 또한 과거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댁에 방문한 적이 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누나가 두부 공장 에서 일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가장 앞서 일어난 일은 '나'가 외삼촌댁에 방문한 사건이다.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의 곁을 떠난 것, '나'가 과거 외삼촌을 만나 '늙은 총기 뱀새'를 맡은 것, 누나가 두부 공장 집 민머느리가 되어 '나'를 찾아오곤 하는 것, 다리 한 짝이 없는 매형이 누나를 찾아온 것 등은 '나'의 체험을 서술한 내용이다. '나'가 누나의 곁 혼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 누나와 매형에게서 '늙은 총기의 뱀새'가 난다고 느끼고 혐오감을 갖는 것 등은 이러한 체험에 대한 '나'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한 것이다.

28. [출제의도]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적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A]에서 '나'는 전쟁과 관련된 인물인 '의삼촌'과 '두부살의 오빠'에게서 '늑손 총기 냄새'를 맡지만, '늑손 무기'를 발견하는 꿈에서 충격을 받는 [B] 이후 [C]로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누나에게서까지 그 냄새를 맡고 혐오감을 느낀다. 이는 전쟁 불구자와 결혼한 누나를 비정상적 인물로 인식함에 따라 누나에게까지 <보기>의 심리적 반응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감상한다.

'나는 가족도 없이 배고픔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나'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누나가 두부살의 오빠와 결혼함에 따라, '나'는 누나를 향해 이질감과 적대감, 곧 '적'의 느낌을 느낀다. '나'가 느끼는, 누나를 향한 '적의' 이전에는 곧 누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누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망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누나는 '나'와는 달리 적대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므로, ㉠에서와 같이 누나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다.

30~32] (언어) 하호빈, '음절 구조와 공명도를 통한 국어 자율동화 연구'

공명도의 개념을 제시한 후, 음절에서 나타나는 공명도 변화 현상과 음절이 결합해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30. [출제의도] 각 단락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라) 단락은 자율동화 현상을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종류를 공명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는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한다.

(나) 단락을 통해 '모음'의 공명도가 '자음'의 공명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 단락을 통해 음절의 중성은 모음, 초성과 중성은 자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음인 중성은 자음인 초성보다 항상 공명도가 높으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음절 경계에서 장에음과 비음이 이어질 때 비음화 현상과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문답'은 [문답]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나 공명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3~36] (교전소설) 작가 미상, '육탄병(玉鬪勝)'

유교적 덕목을 갖춘 선인(善人)인 석난영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악인(惡人)인 유배영의 대립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구조를 통해 일부다체제의 폐해를 비판하는 한편, 유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33.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유 씨'는 소미단을 사용해 '석 씨'로 변신하여 '진공'으로 하여금 '석 씨'가 절개를 훼손했다고 믿도록 만든다. 이에 '진공'은 '석 씨'를 쫓아내고 있는데, '석 씨' 유모를 불러 '석 씨'로 하여금 진정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재촉하는 등 '석 씨'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4. [출제의도] 장면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A]에서 '석 씨'는 신기가 불련하여 진공과 그의 부인의 식사를 수발하지 못하고 침소로 돌아가고 있다. 침소로 돌아간 '석 씨'는 유모와 시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몸을 아예 가누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 씨'가 '2차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에 해당한다.

35. [출제의도] 한자 성어를 사용해 인물의 심정을 표

현한다.

'석 씨'는 '유 씨'의 모함으로 쫓겨나면서 설움이 뼈에 사무치고 있다. 이러한 심정을 나타낼 수 있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각골통한(刻骨痛恨)'이다. '각골통한'은 '뼈에 사무쳐 맺힌 한'을 의미한다.

36.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참조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한다.

이 작품에는 일부다처(一夫多妻)가 허용되던 당대의 사회 모습이 담겨 있다. '석 씨'는 심신이 불편하여 서모(庶母)인 '장파'에게 대신 '왕 부인'의 식사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한다. '장파'는 이러한 '석 씨'의 부탁을 기꺼이 수락하고 있으며 '석 씨'를 염려해 주고 있다. 이는 시아버지의 절인 '장파'와 며느리인 '석 씨'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부다처제가 당대 사람들의 유교 이념 수용에 보편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37~39] (희곡) 채만식, '당방의 전설'

형석 일가는 일제의 수탈과 새로운 경제 체제의 출현에 맞서 전통적 가치관과 가족 제도를 고수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빛을 지게 되어 몰락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비판적 의식 또한 표출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핵심 구절의 내용을 파악한다.

정석은 형석에게 '집안이 망하면 재산이나 없어졌지, 사람까지 없어지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형석은 ㉠라는 말을 한다. 즉, 집안이 망하면 재산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의 앞뒤 대사를 통해 볼 때, 형석은 이십 명의 식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지면 이십 명의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방도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석은 재산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으므로, 이십 명의 식구를 해치는 방식을 통해 살아가는 도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지시문을 넣는다.

정석은 형석의 계속되는 한탄에도 '덤덤하니 담배 연기만 뿜'거나, 정석을 '마주볼 뻔'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석의 태도를 고려하여 ㉢의 앞에 추가할 수 있는 지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덤덤하게'라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고 씨의 첫 번째 대사는 집안이 경매를 당하는 모습을 형석의 아버지가 보게 된다면 자결을 하려고 들 것이라는 자신의 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형석의 아버지가 경매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예고된 사건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또한 현재 장면을 공연하는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고 씨가 무대 밖의 사건을 무대 위의 인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0~43] (인문) 김태환,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조선 시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전서에서 제출했던 글로, 왕이 제시한 책체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 책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1단락에서 책문의 개념, 2단락과 3단락에서 책문의 형식을 설명한 후 4단락에서 책문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41. [출제의도]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2, 3단락의 내용을 보면 책문을 짓는 일정한 형식이 언급되어 있다. 책문은 처음과 끝 부분에 왕을 높이는 찬사와 신하인 자신을 낮추는 겸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책문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 책문에 표현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자신의 부족한 식견이나 경륜으로 인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2.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관계를 파악하고 적용한다.

㉡와 ㉢의 관계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그 대책을 내용으로 쓴 '책문'의 관계이다. '토막'은 '크고 덩어리진 도막' 또는 '말·글·노래 등의 잘라낸 부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토막글'은 '토막'을 어떤 내용으로 한 글이 아니다.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내용을 추리하여 근거를 파악한다.

㉠은 책문이 조선의 지식인 계층이었던 선비들이 유교적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쓴 글이었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유교적 이상이란 선비가 안으로는 인격을 수양하여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을 보필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44~47] (과학) 할러데이 외, '일반물리학'

방사성 원소의 세 가지 붕괴 유형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4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이 글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때 방출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 어떤 것이 인체에 더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와 연결하여 파악한다.

㉡가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를 하여 ㉢가 된다 하더라도, 질량수가 큰 불안정한 원자핵은 납과 같이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붕괴된다.

46.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한다.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변화는 자연 방사성 원소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방사선이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요인은 생명체를 통과하는 방사선의 양에 달려 있다.

4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베타선과 감마선이 함께 방출되는 것이 1회 발생할 경우, 베타 붕괴에 따라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하나 증가하지만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

48~50] (기술) 권영민, '알기 쉬운 생체 인식의 세계'

지문 인식의 개념과 과정을 설명하고,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치인 역치 값이 어떤 이유로 설정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타인 수용률과 본인 거부율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다.

48.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제시된 정보를 파악한다.

지문 인식 센서의 구조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49. [출제의도] 시각 자료에 정보를 적용한다.

㉢은 단점과 분기점의 위치뿐 아니라 지문선의 수가 지 특징으로 잡아내므로, 단점과 분기점의 위치만을 특징으로 추출하는 ㉠보다 더 정밀한 방식이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의 [A]에서 본인은 항상 출입할 수 있지만 타인의 출입 확률도 높아지는 유사도 값은 a, 타인의 출입은 완전히 막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출입이 제한될 확률도 높아지는 역치 값은 d이다. 따라서 ㉡가 적절하다.